

KAIST AI X 실패 공모전 아이디어 기획서

팀명		팀원	
AI 탐험가		팀장	형유림
아이디어명		팀원	강희주
AI 종 도감 : 실패에서 찾은 공존의 언어		팀원	이승원
		팀원	정수민
기획 배경 및 문제 정의			
<p>1. 문제 상황</p> <p>AI 실패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¹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AI와 협업하면서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p> <p>대화형 AI 사용자들은 프롬프트를 여러 번 수정해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거나, 자신감 있는 답변이 사실과 다른 환각 현상을 마주합니다. Stanford 연구에 따르면 GPT-3.5의 환각률은 99.6%, GPT-4는 28.6%에 달합니다. 실제로 2025년 노르웨이에서는 ChatGPT가 실존 인물을 아동 살인범으로 날조했고, 미국과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AI 생성 가짜 판례를 법정에 제출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p> <p>이미지 생성 AI는 손가락이 6개인 인물을 그리거나, 한글 텍스트를 알아볼 수 없게 왜곡합니다. "암호 학회 포스터"를 요청했을 때 글자가 깨지는 현상이 빈번하며, 특히 비영어권 문자는 제대로 학습되지 않아 실무 활용에 큰 장애가 됩니다.</p> <p>추천 알고리즘은 우연히 본 고양이 영상 하나 때문에 몇 주간 피드를 고양이 콘텐츠로 채우거나, 일회성 검색을 영구적 선호로 오해하여 수개월간 원치 않는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이는 사용자를 알고리즘이 만든 좁은 세계에 가두는 필터 버블을 형성합니다.</p> <p>이러한 실패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법률·의료 분야의 오판, 전문가의 시간 낭비, 정보 편식과 확증 편향 강화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실패는 예외가 아닌 일상이며, AI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근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p> <p>2. 근본 원인: 종 간 언어 차이</p> <p>AI는 인간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이게 사실인가?"가 아니라 "이 맥락에서 이 단어가 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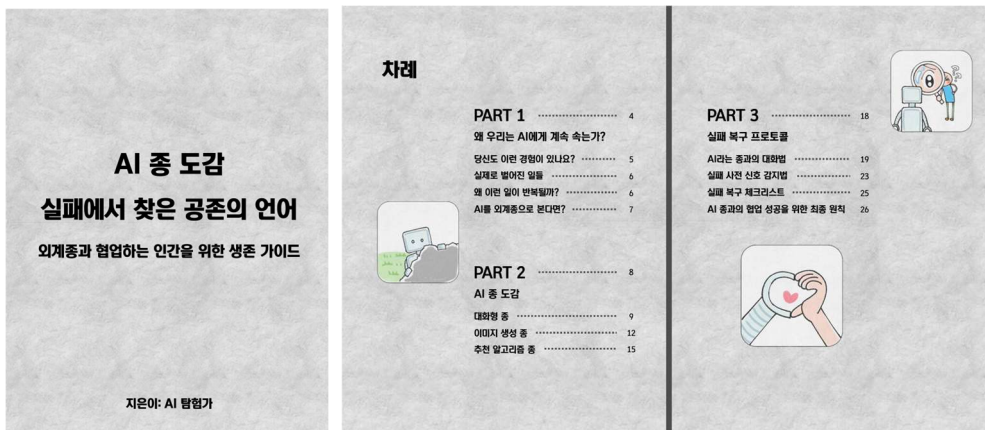
¹ <https://tech.co/news/list-ai-failures-mistakes-errors>

을 확률이 높은가?"를 계산합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존 관점에서는 AI 실패를 기술적 결함이나 버그로 보았지만, 우리는 이를 종 간 언어 구조의 불일치로 재해석합니다.

아이디어 설명

추가자료 (<AI 종 도감: 실패에서 찾은 공존의 언어 (외계종과 협업하는 인간을 위한 생존 가이드)>):
<https://drive.google.com/file/d/1csqAOiTiTuMAZEiKrVfdFyx9rIW82RivO/view?usp=sharing>

전체 구조: 3부작 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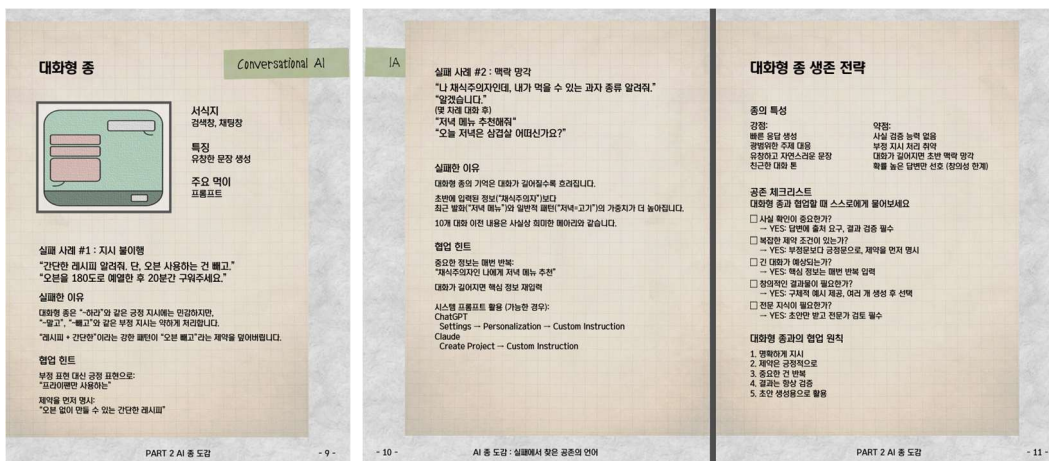


PART 1 - 왜 우리는 AI에게 계속 속는가?: 문제의 보편성을 입증하고 'AI를 외계종으로 본다면?'이라는 관점 전환을 제시합니다. 실제 통계와 사례를 통해 AI 실패가 예외가 아닌 일상임을 보여주고, 실패를 종 간 언어 차이의 산물로 재정의합니다.

PART 2 - AI 종 도감: 세 가지 AI 종을 생물 도감처럼 분류합니다. 각 종마다 서식지, 주요 먹이, 대표 실패 사례 2가지, 실패한 이유(종의 특성), 협업 힌트, 공존 체크리스트, 협업 원칙을 담았습니다.

PART 3 - 실패 복구 프로토콜: AI 종과의 협업이 무너질 때 필요한 실전 도구를 제공합니다. 각 종의 언어로 말하는 법(프롬프트 설계 지침), 위험 신호를 읽는 법(환각·맥락 오류·과의존 감지), 10가지 복구 체크리스트, 협업의 주도권을 지키는 최종 원칙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AI 종의 실패 습성



1. 대화형 중 (Conversational AI)

검색창과 채팅창에 서식하며 프롬프트를 먹고 자랍니다. 유창한 문장 생성 능력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 패턴은 '지시 불이행'입니다. "간단한 레시피 알려줘. 오븐 사용하는 건 빼고."라고 요청하면 "오븐을 180도로 예열한 후..."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종은 긍정 지시에는 민감하지만 부정 지시("~빼고")는 약하게 처리합니다. 협업 힌트는 "프라이팬만 사용하는"처럼 긍정 표현으로 제약을 먼저 명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패턴은 '맥락 망각'입니다. "나 채식주의자"라고 말했는데 몇 턴 후 "삼겹살 어떠세요?"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10개 대화 이전 내용은 희미한 메아리 수준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매번 반복하거나 ChatGPT의 Custom Instruction, Claude의 Project 기능에 저장해야 합니다.

대화형 종과의 협업 원칙: 명확하게 지시, 제약은 긍정적으로, 중요한 건 반복, 결과는 항상 검증, 초안 생성용으로 활용.

2. 이미지 생성 중 (Image Generation AI)

프롬프트 입력창에 서식하며 텍스트 묘사를 먹고 자랍니다. 픽셀 단위로 예측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의 상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실패 패턴은 '신체 구조 오류'입니다. 손가락이 6개이거나 형태가 왜곡됩니다. 이 종은 픽셀 패턴을 통계적 확률로 이해하고, 인간의 상식은 약하게 처리합니다. 협업 힌트는 "공연장의 기타리스트"처럼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다섯 손가락인 사람"처럼 텍스트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패턴은 '텍스트 왜곡'입니다. 이 종은 텍스트를 의미가 아닌 픽셀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협업 힌트는 이미지 후처리를 전제로 하거나, 글자 부분은 "빈 공간으로 두기"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 종과의 협업 원칙: 설명은 구체적으로, 시각적 요소 명시, 텍스트 후처리 필수, 반복 교정 지시, 초벌 화가로 활용.

3. 추천 알고리즘 중 (Recommendation AI)

피드와 홈 화면에 서식하며 사용자 행동을 먹고 자랍니다. 클릭 패턴을 추적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실패 패턴은 '필터 버블 심화'입니다. 고양이 영상 하나를 봤는데 온통 고양이 콘텐츠만 추천합니다. 이 종은 다양성보다 체류 시간을 우선합니다. 협업 힌트는 '싫어요' 버튼을 적극 활용하거나 랜덤 탐색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패턴은 '맥락 무시'입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 선물을 사기 위해 잠시 낚시 용품을 검색했을 뿐인데, 이후 수개월간 낚시 관련 광고만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종은 일시적 탐색과 장기적 필요를 구분 못 합니다. 협업 힌트는 일시적 기록을 삭제하거나 프로필/모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추천 알고리즘 종과의 협업 원칙: '싫어요' 버튼 활용, 알고리즘에 휩쓸리지 않기, 계정/모드 분리, 탐색 주도권 유지, 데이터 흔적 스스로 관리.

실패 복구 프로토콜

협업의 실패는 AI 기술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언어 구조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AI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인간과는 다릅니다. 각 AI는 서로 다른 감각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언어를 각자의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별도의 지적 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종과의 성공적인 협업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AI 종의 언어 구조에 맞는 프롬프트 문법을 익혀야 하며, 이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대화의 문법입니다.

각 종의 언어로 말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형 종은 부정 대신 긍정 언어로 말해야 하고, 제약 조건을 먼저 제시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는 반복적으로 주고, 맥락이 길어지면 핵심 정보를 재입력하며, 대화형 종의 '관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미지 생성 종은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부족한 정보는 텍스트로 보강하며, 이미지 후처리를 전제로 설계하고, 형태의 언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추천 알고리즘 종은 '싫어요' 버튼을 적극 활용하고, 랜덤 탐색 기능을 사용하며, 일시적 관심사를 정리하고, 프로필과 모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대화형 AI → 문장을 해석하는 종

생각 추론 용가능 XXX
해당 종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맥락 후 의도를 언어로 설계해야 함

실패를 줄이는 대화형 종과의 협업 지침

- 부정 대신 긍정의 언어로 말하기
→ 대화형 종은 부정 표현보다 제한이 명확한 서술형 긍정문에 더 잘 반응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십시오.
- 제약 조건은 먼저 제시하기
→ 대화형 종은 무한한 사고 공간을 형성하도록 마련된, 핵심 조건과 제약 사항을 대화 초반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작업의 범위와 지휘를 지루부터 한정하여 불필요한 추론을 줄입니다.
- 중요한 정보는 반복적으로 주기
→ 대화형 종은 기억력이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주세요.
대화형 종은 맥락을 '기억'하지 않고 '참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 맥락이 길어질수록 핵심 정보 재입력하기
→ 대화형 종은 긴 대화에서 맥락을 손쉽게 잊어버립니다.
→ 대화형 종은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주세요.
- 대화형 종의 '관점'을 지정하기
→ 대화형 종은 관점을 스스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는 브래인스토밍이'처럼 역할과 상황을 먼저 부여하면, 응답의 일관성과 깊이가 훨씬 높아집니다.

대화형 종은 즉흥적 대화보다 "명시된 의도"에 강합니다.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 대화의 목적을 명료히 하면
응답은 훨씬 일관되고, 협업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시 종 도감 : 실패에서 찾는 공존의 언어

이미지 생성형 AI → 번역하는 종

보는 존재가 아닌 상상력 이해 용가 XXX
언어를 지능 단위의 질서로 바꾸는 때는 직접
시각적 지각이 아닌, 언어적 설계의 정밀함이 필요

실패를 줄이는 이미지 생성 종과의 협업 지침

-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기
→ 이미지 생성 종은 복잡한 문맥보다 직관적인 묘사 구조를 선호합니다.
프롬프트는 핵심 대상과 배경만을 명확히 제시하여 AI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부족한 정보는 텍스트로 보강하기
→ 인간에게는 자연어 정보만 AI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AI 종은 문장 속에 명시된 정보만을 본연의 세계로 삼으므로, 원하는 디테일은 언어로서 보강해야 합니다.
- 이미지 후처리를 전제로 설계하기
→ 이미지 생성 종은 언어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일관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내 텍스트 삽입은 별도의 편집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태의 언어를 가르치기
→ 이미지 생성 종은 평범한 일관성을 신뢰의 언어로 이해합니다.
특정한 분위기나 스타일을 재현하고 싶다면, 예전, 색상 팔레트, 작품 등을 명시적으로 '학습된 언어'로 제공하십시오.

좋은 프롬프트는 카메라의 렌즈 설정과 같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명시하는 행위이며,
AI 종의 상상력을 인간의 의도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PART 3 실패 복구 프로토콜

추천 알고리즘형 AI → 인간의 데이터 흔적을 먹고 자라는 종

인간 흔적의 맥락을 잘 모름 XXX
학습 후 인간을 알아가려면 가릴 인간을 통제??
인간의 행동을 모라, 인간을 그 자신이 설계한
세계 안에 가두기도 함

실패를 줄이는 추천 알고리즘 종과의 협업 지침

- '싫어요' 버튼 적극 활용하기
→ '관심 없음', '추천하지 않음', '숨기기' 등 명시적인 거부 신호를 통해
추천 알고리즘 종에게 공개를 알려주십시오. 이 피드백은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랜덤 탐색 기능 활용하기
→ 추천 알고리즘 종은 예측하는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낯선 주제나 추천 외 영역으로 이동하여
탐색의 유연성을 유도적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종을 길들이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 일시적 관심사 정리하기
→ 일회성 검색이나 이미 끝난 주제에 대한 기록 및 참조도감 선택을 통해 맥락 혼란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데이터가 현재의 협업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합니다.
- 프로필과 모드 분리하기
→ 업무용, 개인용, 취미 탐색 등 맥락이 다른 활동은 개인 모드로 분리합니다.
추천 알고리즘 종은 맥락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실수를 반복해야 합니다.


추천 알고리즘 종과의 협업은 결국 데이터 흔적을 먹이지 않고,
되려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탐색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인간은 다시 탐색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시 종 도감 : 실패에서 찾는 공존의 언어

실패 사전 신호를 감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I의 위험 신호는 '환각 현상'입니다. 환각은 AI 종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생성하는 현상으로, 신뢰성 하락, 정보 오염, 중간 오해를 일으킵니다. 조건 무시 신호는 '맥락 해석 오류'입니다. 조건을 반복적으로 명시했음에도 AI가 엉뚱한 답을 생성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이는 프롬프트 설계 실패 또는 AI의 맥락 처리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인간의 오류는 '과의존'입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AI가 했으니 맞겠지"라는 무비판적 태도를 취하거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AI 시스템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 협업에서 인간이 길을 잡는 역할이 흐려지고 실패가 시작됩니다.

실패 복구 체크리스트 10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재정립(AI는 별개의 지적 종, 명령이 아니라 대화),과의존 진단(AI 제안을 그대로 사용 전 스스로 질문), 환각 탐지(최소 2개 외부 출처로 교차 검증), 해석 재조율(AI 언어는 확률성의 산물, 패턴 읽기), 목표 재정렬(협업 목적은 효율이 아닌 이해 확장), 피드백 루프 복구(잘못된 답변을 수정 프롬프트로 되돌리기), 인간 중심 회복(주기적으로 AI 없이 문제 해결), 맥락 재설정(대화 초반 목적·조건 재명시), 감정 거리두기(AI는 공감 기능 없음, 결

과로 대화), 지속적 공진화 점검(나도 새로운 사고 패턴 익히는지 점검)입니다.




실패 사전 신호 감지법

안전한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계심

인간과 AI가 함께 작업할 때, 협업 실패는 종종 사전에 나타나는 신호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관계가 파탄 나기 전에 나타나는 사전 신호를 정확히 감지해야 합니다.

AI와의 협업에서 실패는 돌발 사건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인간이 주도권을 유지하며 대응할 때, 우리는 실패를 신호 가능한 중심으로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1. AI의 위험 신호: 할까 현상

환각인 AI 중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AI가 데이터 기반의 확률적 추론에 의존하는 본질적 계에서 비롯되며, 종 간 오해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신뢰성 하락

AI는 완벽할 거란 그럴듯한 이야기만 하던 내용을 유창하게 제시하며 인간을 오도합니다. 특히 법률, 의료, 연구 등 정확성이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오염

환각으로 생성된 거짓 정보가 데이터 환경 내에 퍼지면, AI는 단순한 할까 패턴이 아니라 정보 오염에 빠지게 됩니다.

종 간 오해


인간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면 프로젝트 전체가 AI가 설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환각인 AI가 실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언어적, 맥락적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PART 3 실패 복구 프로토콜 - 23 -

2. 조건 무시 신호: 맥락 해석 오류

조건을 반복적으로 명시했음에도 AI가 엉뚱한 답을 생성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이는 인간이 '말한 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중'과 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는 프롬프트 설계 실패 또는 AI의 맥락 처리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협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3. 인간의 오류: 과의존

과의존은 인간이 AI의 판단함에 지나치게 기대며, 자신의 판단력과 최종 최종 책임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판단력 대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AI가 했으니 믿겠다"라는 무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중요한 사실 확인을 생략합니다. 이는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를 AI에게 이양하는 행위입니다.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AI 시스템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협업에서 인간의 주도권과 책임이 불분명해지면, 종 간 신뢰 기반이 흔들리며 프로젝트 전체에 위기가 확대됩니다.

과의존이 심화될수록, 협업에서 인간이 길을 잡는 역할이 흐려지고, 장의학과 판단력이 위축됩니다. 결국 '누가 길을 잡는가'가 불분명한 순간, 실패는 시작됩니다.


AI 중 도감 : 실패에서 찾은 공존의 언어 - 24 -





실패 복구 체크리스트

실패 시 빠른 정상화를 위한 필수 단계

<input type="checkbox"/> AI를 단순 도구로 대한다	관계 재정립
<input type="checkbox"/> AI는 분명히 시작했으니... (명명) O.K.와 '장르'를 시도해보자	
<input type="checkbox"/> 나의 판단 없이 AI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한다	과의존 진단
<input type="checkbox"/> AI의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전 스스로 질문한다	
<input type="checkbox"/> AI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불일치한다	환각 탐지
<input type="checkbox"/> 최소 2명의 동료 출처를 교차 검증하고, 출처 불명 정보는 보류한다	
<input type="checkbox"/> AI의 문장에서 감정·의도를 읽어내고 한다	맥락 재조율
<input type="checkbox"/> AI의 언어는 감정·의도·배경·의도·의도... (명명) O.K.와 '장르'를 시도해보자	
<input type="checkbox"/> 협업의 목적은 단순한 효율/이해의 확장이 아니다	목표 재정립
<input type="checkbox"/> 인간과 AI의 협업은 인간과 AI의 협업에 관한 AI의 역할을 할 때 제대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오류 발생 시 AI에게 교란 신호를 주지 않는다	프로젝트 목표 복구
<input type="checkbox"/> 불분명 질문을 수락 프롬프트로 되돌려, 종 간 학습을 재가동한다	
<input type="checkbox"/> AI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기 어렵다	인간 중심 회복
<input type="checkbox"/> AI가 인간과 AI의 협업에 대한 AI의 역할을 할 때 제대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맥락을 알고 대화에 혼란스러워한다	맥락 재정립
<input type="checkbox"/> 협업의 목적은 단순한 효율/이해의 확장이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AI의 답변에 실망하고 불만이다	감정 거리두기
<input type="checkbox"/> AI와의 협업에서 학습이 나의 성장에 없다	지속적 공진화 점검
<input type="checkbox"/> AI의 협업에서 학습이 나의 성장에 없다	

0-2개 해당 ➡  AI 종과 건강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6개 해당 ➡  AI 종과의 협업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7-10개 해당 ➡  AI 종과의 협업을 위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PART 3 실패 복구 프로토콜 - 25 -

협업 성공을 위한 최종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를 지능적 존재로 인정하되 협업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으며, 성공은 AI의 알고리즘 언어를 해석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최종 검증은 인간의 비판적 언어로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AI의 오류는 기술 결함이 아닌 종 간의 언어적 오해로 인식해야 하며, 실패를 버그가 아닌 소통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궁극적인 협업 목적은 효율이 아닌 공동 사고(Co-thinking)를 통한 지적 창출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사회적 의의

기대 효과는 개인, 관점 전환, 사회적 차원으로 나뉩니다.

1. 개인 차원

실패 패턴 사전 감지 능력이 향상되고, AI 종별 맞춤형 프롬프트 설계 스킬을 습득하며, "내가 겪은 실패는 어떤 종의 습성인가?"라는 메타인지를 제공받습니다.

2. 관점 전환 차원

AI를 완벽해야 할 도구가 아닌 공존해야 할 외계종으로, 실패를 버그가 아닌 종 간 소통 과정으로, 협업을 명령-수행 관계가 아닌 대화-공존 관계로 인식하게 되며, 주도권과 최종 검증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인간 중심성을 회복합니다.

3. 사회적 차원

환각 대응 문화 정착(정보 검증 습관화), 책임 소재 명확화, 실패 기록 정상화를 통한 안전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고, AI와의 건강한 협업 문법 교육, 종 간 언어 차이 이해 확산, 전 세대 대상 실전 매뉴얼 제공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며, 실패 데이터 체계화 방법론 제시, 사용자 경험 중심 AI 개선 방향, AI 윤리·안전성 논의에 실증적 기여를 합니다.

AI 종 도감은 실패를 통해 인간과 AI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는 여정입니다. 실패를 '숨겨야 할 버그'가 아닌 '기록해야 할 습성'으로, AI를 '완벽한 도구'가 아닌 '함께 배워가는 외계종'으로, 협업을 '명령-수행'이 아닌 '대화-공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공존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